

페이퍼 컷아웃(paper cut-out)기법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최서윤 · 김혜경*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약

오늘날은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문화가 다변화되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더불어 다양한 변화로 하나의 창조활동으로 예술성을 전달하고 패션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표현 예술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패션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표현의 자율성과 독자적인 표현으로 발전시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적,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작가의 개성 표현과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위해 다양한 표현기법을 등장시켰다. 그 예술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컴퓨터 그래픽과 전통적인 표현 기법도 새로운 재료의 선택과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색 있는 표현 기법의 개발을 통해 하나의 조형 활동으로 예술적 범주를 넓혀 가고 있다. 일상과 밀접한 종이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에 스며들어 있고 형태의 변형이 자유롭고 쉽게 다룰 수 있다. 예술 분야에서도 종이는 예술 표현의 매체로 독자적인 조형 형태를 갖추고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이에 종이조형기법의 한 분야인 페이퍼 컷 아웃은 종이를 재료로 가위나 칼로 종이를 오려내 원하는 평면적 조형을 입체적 조형으로까지 표현이 가능한 기법이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예술가들은 과거의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의 입체성, 시간, 공간성등과 관련된 가치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재인식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꽃을 모티브로 인체에서 곡선미와 울동미가 있는 다리에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위해 평면적 기법을 탈피하여 기본재료로 종이로 하여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을 통해 새로운 표현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독창적이고 창의적 기법으로 확립시켜 새로운 조형세계를 창출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페이퍼 컷 아웃, 종이조형기법,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꽃문양, 인체 다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는 예술 분야의 영역을 확대 변화시키고 있다. 다양화된 표현 방법이 나타나고 창의적인 표현 방식들을 확립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에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중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으며, 예술성이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해 창의적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와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과거에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정보 전달 기능이 주가 되었다.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작가 중심적 주관과 해석을 통한 패션 이미지 표현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진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평면적이고 단순한 표현에서 조형적이고 창의적 예술성을 내포하는 표현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기법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기계화 되어가고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좀 더 빠르고 쉬운 것들을 추구한다. 이러한 시대상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도 그래픽 프로그램의 개발로 기계적 작업이 늘면서 표현 방법에 제한을 두게 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작업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곡선미와 율동성을 동시에 보이는 다리에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위해 평면적 기법을 탈피하였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종이를 재료로 한 페이퍼 컷 아웃(cut-out) 하여 우리의 생활과 가깝고 종이 가지는 표현의 용이성을 효과적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내하고자 한다. 페이퍼 컷 아웃기법을 중심으로 원하는 입체적 조형미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각하였다. 페이퍼 컷 아웃기법으로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는 다양한 음영효과를 통해 창의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미지 표현에 새로운 기법으로 확립시켜 새로운 조형세계를 창출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예술 전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표현기법을 고찰하고 실제 작품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예술의 한 장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곡선미와 율동성을 동시에 보이는 다리에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위해 평면적 기법을 탈피하여 종이를 기본재료로 표현하고자 한다. 페이퍼 컷 아웃기법을 통해 새로운 표현 방법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 제작으로 구성되었다.

이론적 배경은 크게 작품의 표현 기법인 페이퍼 컷 아웃기법에 대한 고찰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나누어 이와 관련된 사례와 전문서적,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의 개념과 정의를 참고 문헌을 토대로 알아보고 종이에 컷 아웃된 작품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일반적인 개념과 정의를 참고 문헌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을 응용하고 문양을 개발하는 것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은 2개의 꽃을 문양화 하고 2개의 다른 포즈의 다리에 컷 아웃 하여 빛에 의한 음영효과를

표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체 표현에 있어 간결하고 굴곡 미와 율동미가 있는 다리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여 보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고찰

패션(fashion)의 어원은 라틴어로 factio에서 비롯된 말로 ‘행동’, ‘행위’ 또는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양식, 형(shape), 유행(vogue), 습관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¹⁾ 패션은 사회현상의 하나로 일정한 사회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극에 대하여 일으키는 반응으로 사회적 동조형태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²⁾ 또한 패션화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는 바로 복식이기 때문에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복식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여 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패션이란, 복식뿐만 아니라 전기기구나 생활용품 등의 산업 디자인, 건축 등에 있어서의 인테리어 디자인, 그 외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음악이나 춤, 스포츠나 게임, 또는 언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행동 양식이며 사회현상의 일면의 총칭으로도 볼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의 어원은 ‘to making light’로 보이지 않는 대상에 빛을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즉 감정이나 사상을 시각화하여 대중을 통하여 명철하게 해명한다는 의미이다. 곧 일러스트레이션은 사고 이전의 느낌이며, 직감적 영상 언어를 표현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시각 언어인 것이다.³⁾

현대적 개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순수 미술과 같은 기법이 필요하나 단순한 설명적인 그림이 아니고 또한 그래픽 디자인의 지엽적 요소만 도

닌, 컨셉(concept)을 가진 목표 지향적 그림으로서 또는 시각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아트(communication art)로서 그 자체의 독자적인 장르를 형성해 가고 있다.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fashion illustration)은 패션과 일러스트레이션의 합성어이다. 패션과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하거나 패션 정보를 전달시키기 위한 것으로 색채와 형태에 의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이다. 유행하는 복식을 그린 것 또는 만들기 위해 그린 것으로 패션의 의미와 가치와 속성을 합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⁵⁾

이러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용되는 목적, 기능, 용도에 따라 적합한 패션 정보 및 패션 이미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패션에 민감한 대중들은 항상 새롭고 신선한 시각적 충격을 요구하므로 작가는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독창성과 예술성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해야 한다.

오늘날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산업의 시각매체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패션 트렌드(fashion trend)를 선도하고 더 나아가 예술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영역을 넘나드는 시각예술로서 자리 잡고 있다.

2. 페이퍼 컷아웃(paper cut-out)기법에 관한 고찰

1)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의 개념과 표현기법

(1)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의 개념 및 역사

지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길을 찾았다 그로 인하여 발달한 것이 예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의 한 종류가 페이퍼 컷팅이라고 할 수 있다.⁶⁾

페이퍼 커팅(paper cutting)은 자르기 혹은 가위로 자르기 등의 의미로 중국에서 시작되어 그 후 중동을 거쳐 17세기경에는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스위스 등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17세기 후반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에 의하여 시사, 풍경 및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다.⁷⁾

나라와 장소, 시대와 풍속,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방법과 풍습은 다르게 전해지고 있었다.

오늘날 예술가들은 종이를 예술 창조의 진정한 예술 매재(媒材)로 간주하고 입체적인 조형을 시도하여 종이의 풍부한 표현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또 미술 표현의 매재로써 종이의 발견은 예술가들에게 현대 조형예술 영역의 확대와 함께 재료 사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제지에 의해 제조된 종이는 재료로서의 인식을 벗어나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⁸⁾ 또한 특유의 질감, 형태, 색채 등이 독특한 표현효과를 제공하고 종이의 가용성과 종이자체의 물성을 극대화 시켜 평면작업에서부터 3차원적 입체조형까지 그 제작의 광범위한 확장을 보여준다.

현대 디자인 교육의 기초를 마련한 바우하우스(Bauhaus)에서는 조셉 알베르(Josef Albers)에 의해 종이를 연구하는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은 한 장의 종이를 그들 나름대로 자르고, 구멍 뚫고, 직물로 짜고, 무늬를 조각하고 쌓아 올리는 등의 종이의 조형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리하여 종이라는 재료의 성질을 강조시켜 그 재료가 가지는 특수성을 파악시켰고 구성 재료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고 형태만 변형시킴으로써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재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것은 예술작품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강도, 유연성 등의 특성을 이용한 작품제작을 실험했던 것으로 종이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예술가에게 일깨워주는 하

나의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다.⁹⁾ 이처럼 종이에 대한 관심과 시각의 변화는 종이의 양적 증가와 함께 상호간에 촉매작용을 하면서 예술을 담는 매체로서 종이의 개념을 확장시키게 되었다.

(2)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의 표현기법

페이퍼 커팅은 오리거나 오려진 것을 평면에 붙임으로써 이차원의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단지 종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려진 종이를 구부리거나 겹쳐줌으로써 종이가 가지는 가소성으로 인해 형태를 지니게 되고 이런 조형 활동을 통해서도 풍부한 입체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페이퍼 컷 아웃의 기법에는 접어 자르기, 연속 도안 자르기, 네거티브(negative)와 포지티브(positive) 커팅, 색종이 오려 붙이기, 페인팅하여 만든 페이퍼 커팅, 흰색 종이 자르기, 실루엣(silhouette) 오리기 등이 있다.

접어 자르기는 1번, 2번, 3번, 여러 번 접어 자르는 방법이 있다. 종이를 여러 번 접어 자른 후에 펼쳐 마치 만화경처럼 여러 개의 대칭적인 패턴을 나타내서 문양이 형성된다.¹⁰⁾ 접어 자르기 방법은 정사각형, 장방형, 다이아몬드, 원형, 꽃 모양 등 형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종이를 접어 원형 문양을 잘라내기 형태를 단화(團花)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대칭, 균형, 완전과 같은 완벽한 상징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속 도안은 중국 고대에 채문도기와 청동기에 새긴 대칭적 연속무늬에서 생겨난 것이며 연속 도안기법은 긴 종이를 부채 모양으로 여러 번 접어서 맨 윗부분에 원형을 그리고 자르므로 연결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¹¹⁾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페이퍼 커팅은 흑·백을 서로 조합하여, 서로 이용하는 작용을 만들어 낸다. 밝은 면 위에서 여러 가지 어두운 선과 형태가 또는 어두운 면 위에서 밝은 선과 형태가 리듬 있는 단절 속에서 이어질 뿐 아니라 동시에 각각 단

위의 최대한의 대비에 의해 보다 큰 긴장감을 만들어 낸다.¹²⁾

색종이 겹쳐 붙이기 기법을 말하자면 프랑스 아티스트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가 생각한다. 색종이 겹쳐 붙이기 기법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 컷 아웃기법은 소묘행위(외곽선 긋기), 조각행위(오려내기), 회화행위(색칠하기)의 세 가지를 작업 속에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색채의 조각, 이미지의 반복, 종합적 구성을 나눌 수 있다.¹³⁾

페인팅(painting)하여 만든 페이퍼 컷팅은 물감(water color)을 잘 흡수해주는 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페인팅 방법에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다 자른 뒤에 칠하는 방법과 자르기 전에 칠하는 방법이 있다.

흰 종이 페이퍼 컷팅은 검은 종이보다 훨씬 오래 전인 16, 17세기경 유럽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 흰 종이 페이퍼 컷팅은 대개 양피지를 사용하였는데 독일의 로버트 윌리엄 후스(Robert William Hus)가 최초로 알려진 흰색 종이 페이퍼 컷팅 예술가였으며, 매우 익살스러운 작품들을 만들었다 <그림 1>, <그림 2>.¹⁴⁾

실루엣(silhouette) 페이퍼 컷팅은 하나의 색조만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나 도안, 또는 물체의 윤곽이나 윤곽이 뚜렷한 그림자이다. 17세기경 유럽에서 시작하여 18~19세기경에는 세계 명사들 사이에서 실루엣 작품 수집이 널리 유행되었다. 실루엣은 오리거나 그려서 만든 측면초상이며, 피테를 비롯하여 프랑스 재무장관인 에티엔 드 실루엣(Etienne de Silhouette)등을 들 수 있는데 페이퍼 컷팅을 좋아하는 특별한 취미를 가졌으며 또한 수집가였다. 오늘날에는 그의 이름을 따서 그와 같은 초상화를 실루엣이라고 부르게 되었다.¹⁵⁾

실제적으로 페이퍼 컷팅의 궁극적인 중심점은 표현수단이 아니고 그것 보다 중요한 것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더 중심적이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다. 즉 창작을 할 때 마음과 생각이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작업한다. 페이퍼 컷팅의 형상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종이와 가위,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과 함께 이루어지는 무형의 정신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기법을 살펴보았다.



<그림 1> 앙리 마티스, 「Polynesia」
(출처: 「The Sea」, 1946, p.11)



<그림 2> 로버트 윌리엄 후스, 1653
(출처: 「Allegorical Representation」, 1653, p.7)

이러한 독특하고 색다른 표현방법으로 페이퍼 컷팅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알아볼 뿐만 아니라 기법에 따라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페이퍼 컷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회·경제·문화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각자 법이 있고 표현방식과 표현 기법도 달라진다.

2)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을 응용한 사례연구

현대예술은 아이디어의 결정체라고 한다. 급변하는 시대사조에 순응하여 작가들은 신기하고 특이한 소재와 기법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재료와 기법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인식하기도 한다.

종이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20세기 들어서 재발견된 그런 재료 중 하나이다. 잘 알려진 대로 입체파의 대가인 피카소가 화면 위에 인쇄된 종이를 붙여 활자에 의한 정보로 이미지를 전달시킨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활자가 쓰인 종이를 붙이는 파피에 콜레(papier colle)라는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입체파는 이전까지 화면을 나누고 이미지를 분절시키는 분석적 입체주의라는 제작태도에서 벗어나, 종이를 오리고 붙이거나 활자를 써 넣어 이미지를 추가시키는 종합적 입체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입체파가 시도한 파피에 콜레는 이후 여러 유파에 도입되어 독특한 표현효과를 창출하거나 몽타주 기법과 같은 방식으로 기법적인 변형을 거치면서 현대미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¹⁶⁾

가장 현대적인 미술 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¹⁷⁾에서는 오브제(object) 미술적 성향이 강조되어 그 결과 매체의 물성에 탐닉하는 물신주의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다다이스트(dadaist)¹⁸⁾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작업이 그에 대한 고전적인 방법으로 언급되며, 이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팝 아트(pop art)¹⁹⁾라든지 소프트 스킵처(soft sculpture)와 같은 새로운 이름과 얼굴을 지닌 형식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미술계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흔히 부드러운 조각이라고 불리는 소프트 스킵처 분야에서 종이조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컷아웃 기법의 작품들이 그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종이가지닌 재질적인 특성과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들은 뛰어난 상상력과 풍부한 미적 감수성

으로 종이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평면의 콜라주를 포함하여 3차원의 입체 및 설치작품까지 다양한 형식을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던 종이를 이용한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은 현대적인 아이디어까지 잘 담낼 수 있는 예술 형식이다. 더욱이 종이는 만드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쉽게 바뀌는 장점이 있으며, 어떠한 표현까지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주목된다.

이에 페이퍼 컷아웃 기법을 이용한 작품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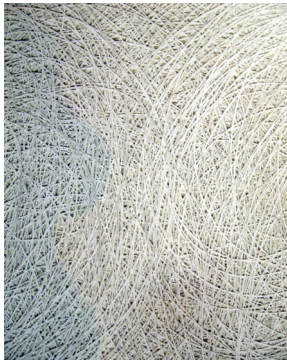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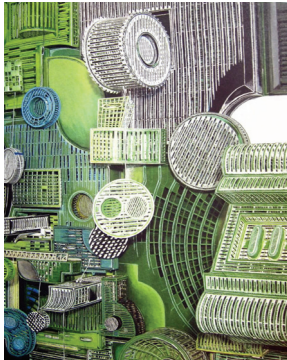
피터 칼리슨(Peter Callesen)은 2차원과 3차원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데 기본을 두고 작품을 하며 작업 과정이 분명하고 완성된 입체 형상들을 근본적으로 평면의 종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를 마술과 같은 프로세스라 말한다. 모든 잘려진 부분들은 일부분 비극적인 면을 지닌다. 몇몇 종이 조각들은 오래된 동화의 내용 또는 로맨티즘과 연관되어 있는데 작품 불가사의한 성의 경우는 양청병정이 종이로 된 성에 사는 종이 발레리나와 사랑에 빠진다는 안데르센 동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작업들 중에는 작은 형상들이 크고 파워풀한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들을 담은 일종은 작은 드라마 같은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안이 밖으로 뒤집어서 나오거나 종이의 앞과 뒤가 만나는 등 불가능함과 환영, 반사 등을 다룬다. 피터 칼리슨은 종이 중에서도 A4용지에만 작품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3>, <그림 4>.

미아 펄만(Mia Pearlman)의 작품들은 대부분 자연현상을 모티브로 하는데 페이퍼를 정교히 컷팅하고 중첩하고 늘어뜨려 3차원적인 작품으로 승화시키는데 특징이 있다.

미아 펄만은 매우 순간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직관적인 프로세스로 인도의 잉크와 종이의 큰 물에 느슨하게 라인 드로잉을 만들어 시작한다고 말하며 그는 반대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공간에서



<그림 3> 피터 칼리슨,
『Image of reality(cherryblossom)』, 2005
(출처: 『The Paper』, 2009, p.51)



<그림 4> 피터 칼리슨,
『Image of reality(cherryblossom)』, 2005
(출처: 『The Paper』, 2009, p.4)

새 드로잉을 만들 줄 사이중에 선택한 부분을 페이퍼 컷팅하고 30~80조각으로 컷팅된 사이에 얽혀 있는 종이들을 시행착오와 컨트롤을 2~3일 동안 반복하여 최종 설치를 한다. 기존의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동적 경계에서의 무중력 세계를 추구하며 그것은 창조, 파괴의 중재, 그리고 현실의 일시적 성격이라 말하며 자연에서의 파괴적 힘 그중에서도 폭풍과 태풍전의 상황을 작품으로 표현 하고 있다<그림 5>, <그림 6>.



<그림 5> 『NIGH』, 2007
(출처: <http://www.miapearman.com>)



<그림 6> 『PAPERSTORMS』, 2008
(출처: <http://www.miapearman.com>)

III.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배경 및 방법

1) 작품제작 배경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와 패션 이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패션에 관한 정보 전달, 광고 홍보 및 전시를 위한 예술 작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가의 개성 있는 다양한 기법에 따라 다양한 표현에 의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표현과 옷의 표현을 기본으로 예술성을 나타내고자 다양한 인체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각과 개성을 보여주는데 과장, 왜곡, 상징화하여 인체를 표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인체 표현은 작가만의 개성과 감각을 그대로 표출하는 매개체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예술의 한 장르로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인체는 중요한 매체이지만 제한적 표현법이 주를 이루는 인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인체의 동적인 움직임 표현하여 인체가 가지는 율동감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다리에서의 곡선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옆모습의 동작들을 기본으로 하였다.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있는 인체 중에서 다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옆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인체에 꽃을 동적인 움직임 안에서 정적인 꽃문양을 반복 배열하고 크기는 축소, 확대 하였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이자 상품이며 놀이도 구이며 예술재료인 종이를 재료로 하였다, 일상과 밀접한 종이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에 스며들어 있고 형태의 변형이 자유롭고 쉽게 다룰 수 있다.

가벼운 중량감은 종이의 손쉬운 사용을 하게 하였고 종이라는 재료적 의미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지고 있다.

또한 드로잉의 관념에서 탈피하고 종이를 새로운 표현 재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을 통해 새로운 조형 세계를 제시하고, 패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적합한 기법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독창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창출하여 예술성과 장식성을 높이고자 한다.

첫째, 종이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 가운데 컷 아웃 기법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시각적 재질감과 촉각적 재질감을 동시에 표현 할 수 있었다. 이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예술적이며 장식적인 느낌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둘째, 페이퍼 컷 아웃 기법에 의한 부조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빛에 의해 음영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더욱 완결된 조형미와 입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꽃의 조형적 특징은 단순화된 과정을 통해 패턴화 시켰고, 그것을 일정한 형식으로 인체에 장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꽃이 갖는 정적인 이미지와 인체의 율동적인 이미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케 하였다.







이에 인체 표현은 동적인 포즈로 문양은 동심원안의 정적인 형태로 반복, 축소, 확대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꽃의 색상에 대한 분석을 전반적으로 하였으나 작품에서는 꽃의 형태에 주안점을 두었다.

작품의 표현 기법으로 페이퍼 컷 아웃 기법을 중심으로 평면적 작업 재료로서의 종이의 일반적인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표현 재료로 이용과 동시에 두께감을 주어 컷 아웃하고 투각하여 인체의 실루엣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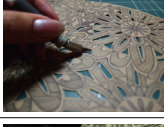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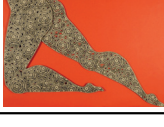
이 같은 방향에 맞추어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작품 제작 계획표는 <표 1>과 같고, 작품 제작 과정은 <표 2>와 같다.

2) 작품 제작 방법

<표 1> 작품 계획표 4

no	모티브	문양	특징	재료	색상
작품 1	 동백꽃		꽃잎은 5~7개가 밑에서 합쳐져서 비스듬히 퍼지고 어긋나며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잎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잔 톱니가 있다,	0.3mm water pen craft paper color mermaid form board	
작품 2	 수련		잎은 달걀상 원모양 또는 달걀상 타원모양으로 밑부분이 화살모양으로 깊게 갈라지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0.3mm water pen craft paper color mermaid form board	

<표 2> 작품 제작 과정

no	제작과정 이미지	설명
1		종이에 프로포션 잡고 스케치
2		스케치된 형태 안에 컴파스로 동심원을 그리며 개발한 꽃문양 그리기
3		그려진 문양 위에 0.5mm 수성 펜으로 1차 컬러링
4		1차 컬러링 위에 0.3mm 수성 펜으로 그라데이션 효과 주어 표현
5		35도 각도의 디자인 칼로 종이 슬래쉬
6		폼보드위에 종이 슬래쉬한 작품을 접착하고 우드락 열 커팅기로 폼보드 투각
7		컬러 머메이드지 위에 고정하여 완성

2. 작품 제시

1) 작품 1

크기 : 가로 90cm * 세로 60cm

기법 : paper cut out

배경색 : vermilion hue

작품 1의 모티브가 된 동백꽃(학명 *camellia japonica*)은 차 나무과 쌍떡잎식물로서 꽃 색깔은 붉은색이고 개화시기 1~4월 개화계절 겨울~봄이다. 수확시기 9~10월 꽃 생김새는 양성화로 1~4월에 피며 붉은색으로 잎겨드랑이나 가지의 끝부분에 1개씩 개화. 꽃받침은 5개로 달걀상의 원모양이고 꽃잎은 5~7개가 꽃자루 없이 가지에 붙어 달림. 수술은 90~100개로 노란색이며 암술대는 3개로 갈라진다.



<그림 7> 작품 1 이미지

2) 작품 2

크기 : 가로 44cm * 세로 72cm

기법 : paper cut out

배경색 : brilliant pink

작품 2의 모티브가 된 수련(*water lily* / 학명 *nymphaea tetragona* var. *angusta* CASP)은 미나리아재비목 수련과로 다년생이다. 크기 1m정도이고 꽃 색깔은 흰색과 분홍색이 있다. 개화 시기는 6~8월 개화계절 여름이고 꽃 생김새는 수면 위에서 피고 흰색 혹은 분홍으로 긴 꽃자루의 끝부분에 개화한다. 꽃은 피었다 닫았다를 3일 동안 반복한다.



<그림 8> 작품 2 이미지

IV. 결 론

현대는 기술, 의학, 문화, 예술 등이 다양화, 다변화 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는 대중들은 더 참신하고 가치 있는 것을 원하고 다른 차원의 것을 추구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다양한 표현 기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새로운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어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기본의 드로잉을 이용한 표현 기법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mass media)를 활용한 비디오 아트(video art), 홀로그래피(holography), 광원을 이용한 레이저 아트 등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표현 기법들도 새로운 발견과 재해석 되어져야 한다.

또한 21세기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하나의 사회예술 영역의 한 부분을 이루며 시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한 커뮤니케이션 예술로서 패션 트렌드를 독창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에 작가의 개성을 표현하고 패션 이미지와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목적에 맞추어 작가만의 감각과 스타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 기법은 매우 중요하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인체 표현은 작가만의 개성과 감각을 그대로 표출하는 매개체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예술의 한 장르로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로잉의 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표현 재료로서 종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컷아웃 기법을 통해 새로운 조형 세계를 제시하였다. 패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적합한 기법으로 발전시킴으로서 독창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창출하여 예술성과 장식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꽃을 모티브로 문양을 옷이 아닌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있는 굴곡 미와 율동미가 있는 다리에 표현하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옆모습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모티브의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반복 형태를 이루어 축소, 확대된 것을 컷 아웃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이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 가운데 컷아웃 기법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시각적 재질감과 촉각적 재질감을 동시에 표현 할 수 있었다. 이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예술적이며 장식적인 느낌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둘째, 페이퍼 컷아웃 기법에 의한 부조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빛에 의해 음영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더욱 완결된 조형미와 입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꽃의 이미지를 단순화된 과정을 통해 문양화하고 그것을 일정한 형식으로 인체에 장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꽃이 갖는 정적인 이미지와 인체의 율동적인 이미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케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종이를 일반적인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표현 재료로 이용함과 동시에 컷아웃하고 해학적인 인체 표현과 그 인체에 문양을 투각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새로운 조형 세계로의 가능성을 발견하

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문화, 환경의 급 변화에 따라 전통 속에 깃들어 있던 원시적, 주술적 기능을 버리고 생활예술로 자리 잡은 페이퍼 컷아웃은 예전보다 더 보급되고 다양하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폭 넓은 연구를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시각 예술의 한 장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김혜영 (2001). *The Paper of Paper Cutting*, 서울: 문무사, p.4.
- 2) 김진희 (1999). 종이조각기법을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 3) 김정신 (199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종이 작업의 조형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p.31.
- 4) Winger, H. M. (1982). 바우하우스, 김윤수 옮김 (2001). 서울: 미진사, p.44.
- 5) 김진희. 앞의 논문, p.29.
- 6) 위의 논문, p.29.
- 7) 이경진 (2004). PVA도포 종이를 응용한 미술의상 연구: 종이조형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 8) 김선영 (1994). 종이접기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 9) 권영길, 김영인, 채정우, 이지현, 박재석, 양지영 (2003). 한 중 일 선호이미지와 조형인자의 실용DB구축, 서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한국 디자인 진흥원, 중앙디자인, 산업자원부, p.39.
- 10) 김정신. 앞의 논문, p.32.
- 11) Webster, M. (1951). *Webster's Dictionary of Synonyms*, New York: G&C Merriam Company Publishers, p.33.
- 12) 장문호 (1975). 복식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167.
- 13) 광영권 (1985).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서울: 미술세계, p.24.
- 14) 연문희 (1998). Mats Gustavson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15) 박순천 (1996). 디자이너를 위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서울: 학문사, p.9.
- 16) Scott, E. C. (1999). *Paper Making*, London: Lorentz Books, p.67.

- 17)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여성운동·흑인민권운동·제3세계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deconstruction) 혹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증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구에서 근대 혹은 모던(modern) 시대라고 하면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성중심주의 시대를 일컫는다. 종교나 외적인 힘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던 계몽사상은 합리적 사고를 중시했으나 지나친 객관성의 주장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니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거친 후 포스트모던 시대는 J.데리다, M.푸코, J.라캉, J.리오타르에 이르러 시작된다.
- 18) 다다이즘(dadaism): 제1차세계대전(1914~1918)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 다다(dada)라고도 한다. 조형예술(造形藝術)뿐만 아니라 넓게 문학·음악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다다란 본래 프랑스어(語)로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목마(木馬)를 가리키는 말이나, 이것은 다다이즘의 본질에 뿌리를 둔 '무의미함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19) 팝아트(pop art): 1950년대 초 영국에서 그 전조를 보였으나 195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매스 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문화적 시각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구상미술의 한 경향을 말한다.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aper Cut-out Technique to Fashion Illustration

Choi, Seo Yoon · Kim, Hye Kyung⁺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an's University⁺

Abstract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day are leading to diversification of culture. Fashion illustration is also changing, with a variety of creative activities relaying artistry and personal expression, to create an image of fashion as art. Fashion illustration also expresses the artist's personality and image to the public through various new techniques. The artistic value of fashion illustration has increased. From traditional representation to computer graphics and the selection of new materials and techniques, development of distinctive expression techniques in expanding artistic categories increases visual impact. In the field of art, paper is recognized for its value as an independent form of artistic medium. Paper cut-out is a method of paper sculpting that uses paper as materials and cuts the paper using scissors or a knife to turn the two-dimensional form into a three-dimensional form of expression. Artists in the modern age are especially understanding and re-recognizing the values related to the paper cut-out technique, such as three-dimensionality, time and space. In this study, floral motifs were used on the legs, a part of the human body with curves and movement, to create a unique method of expression that breaks away from two-dimensional techniques based on paper and the paper cut-out technique.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in creating a new world of formative expression by developing a fashion illustration method that uses new techniques and thus increasing the value of fashion illustration.

Key words: paper cut-out, paper prototyping techniques, fashion illustration, flower, human leg